

경제 불안에 국내 금 거래대금 '역대 최대'

이달 19일까지 일평균 169억...KRX 금 시장 첫 기록 전월비 2.4배 수준...중동 지정학적 위기로 수요 몰려

중동 위기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내 금 거래가 이달 들어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19일까지 국내 금 시장의 일평균 금 거래대금은 169억1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KRX 금 시장이 개장한 지난 2014년 3월 24일 이후 최대다.

또한 이는 지난달 일평균 거래대금(68억6천만원)의 2.4배 수준이다.

종목별로 보면 이달 금 1kg 현물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161억6천만원, 미니 금 100g은 7억5천만원이다.

이달 일평균 금 거래량도 16만885g으로 전월(7만4천137g)의 2배 수준으로 늘었다.

최근 이란과 이스라엘 간 충돌로 지정학적 긴장이 커진 데다 인플레이션 우려 확대, 중국 금 수요 증가 등으로 국제 금값이 치솟자 금에 대한 수요가 더욱 몰리는 모양새다.

금은 전통적인 안전자산으로 투자

자들 사이에서 경제 불확실성이나 인플레이션, 통화 정책에 따른 위험 해지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있다.

이스라엘이 지난 1일 시리아 내 이란 영사관을 폭격해 이란혁명수비대 간부 등을 살해하자, 이란은 지난 13일 이스라엘 측에 드론과 미사일로 보복 공습을 단행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확전 방지 노력 속에 중동의 긴장은 잦아드는 듯했으나 19일 이스라엘이 이란에 재보복 공습을 단행하면서 다시 긴장감이 커졌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이달 들어 7.1% 올랐다.

한국거래소(KRX) 금 시장에서 금 1kg 현물 가격은 이달 들어 10.3% 올랐으며, 미니 금 100g도 13.4% 상승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가 5.6% 하락한 것과 대조적이다.

KRX 금 현물 지수를 기초 지수로 하는 'ACE KRX 금 현물 ETF'도 이

달 들어 9.2% 오르는 등 금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 수익률도 고공행진 중이다.

중동 긴장으로 금 가격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유승민 삼성증권 연구원은 "이스라엘과 이란 양측이 서로 보복 공격을 감행하면서 확전을 촉발할 수 있

는 레드라인 바로 아래까지 도발하고 있다"며 "당분간 중동 지역의 불안정성은 한 단계 상승한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며, 이는 국제유가를 자극하고 금융시장의 위험 회피를 지속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금 수요가 이탈하면서 상승세가 둔화할 것

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진영 대신증권 연구원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금값을 올릴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금값 상승세는 둔화할 수밖에 없다"며 "현시점에서는 금보다 은이나 구리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낫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어린이날 맞이 인기 완구 할인 어린이날을 앞두고 홈플러스가 2천700여종의 완구 상품 할인과 상품권·사은품 증정, 팝업스토어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완구 할인 상품 소개 모습. <홈플러스제공>

투데이경제



전력거래소-태양광 대표단체 간담회

전력거래소는 21일 "최근 전력거래소 본사에서 '태양광 대표단체-KPX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태양광 업계를 대표하는 3개 주요 기관(전국태양광발전협회,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기후솔루션)과 국내 전력계통 및 시장을 운영하는 전력거래소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태양광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재생에너지 제도개선 관련 의견수렴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태양광 대표단체 관계자는 중앙전력관리센터를 관람 후 낮시간 실시간으로 변동하는 전력 수요에 맞춰 발전기 출력을 조정하는 모습을 보며,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전력거래소 임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정동희 전력거래소 이사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안정적 계통운영과 전력시장 혁신을 위해 제주지역에서 시범운영 중인 재생에너지 입찰 제도(전력시장 제도개선 제주 시범사업)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과 허심탄회하게 소통할 수 있었다"며 "중·소규모 태양광 사업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협력 방안 등에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임채만기자

GICON, 호남 ICT분야 청년창업기업 지원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은 21일 "2024년 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사업"을 통해 호남지역(광주, 전남, 전북, 제주) 기반 청년창업기업을 지원하는 'AI창업스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AI창업스쿨'은 호남지역내 ICT·소프트웨어 기반 우수 사업 아이템을 보유한 초기 청년창업자들의 지속적인 성장유도와 지역 창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청년창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19~39세의 청년이며 호남지역을 소재지로 한 ICT분야 창업 3년 이내 사업자다.

신청은 5월14일 오후 4시까지 공고문에 따라 사업신청서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 접수하면 된다.

총 5개사를 선정해 ▲사업화 지원금 ▲PITCH DECK 컨설팅 및 디자인 제작 지원 ▲모의IR 피칭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현자기자

광융합산업진흥회 '1회 광융합산업 진흥 포럼' 개최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이하 '진흥회')는 21일 "지난 19일 진흥회 1층 공동훈련센터 교육장에서 광융합산업 관련 산학연관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융합산업 혁신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제1회 광융합산업 진흥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진흥회가 '광융합기술 진흥 전담기관'으로서 광융합산업 관련 통계, 정책 및 산업생태계 고도화

지원사업 등을 발굴해 대정부 정책 제안 등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 정립을 통해 국내 광융합산업을 활성화시키고자 마련됐다.

이에 따라 이날 포럼에서는 진흥회 주요사업 및 광융합 연구조합 운영방안에 대해 소개하고, 광융합산업의 시장 및 기술동향 정보를 기업과 함께 공유하며 더 나아가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뒀다.

진흥회는 포럼을 기업 중심의 산학연관 '협력 네트워킹의 장'으로 매일 정례화함으로써 정부사업 발굴과 대정부 정책제안의 주요 창구 활용, 수요-공급기업, 기업-전문가와의 만남을 활성화해 갈 계획이다.

진흥회 김동근 상근부회장은 "광융합산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광융합산업 전담기관'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은성기자

최상목 "배당소득 분리과세·법인세 세액공제"

국회 법 개정 절차 필요... "내년 예산 원점 재검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기업가치 제고 대책, 이른바 '밸류업'의 일환으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입법 사항으로 야당을 비롯한 국회의 법 개정 절차가 필요하다.

내년 예산은 모든 분야에서 원점 재검토해 비효율적인 부분을 걷어내고 민생토론회 등에서 나온 정책소요를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 D.C에서 국내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렇게 말했다.

최 부총리는 "배당소득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하겠

다"며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노력을 늘린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언급은 앞서 밝힌 주주환원에 대한 한시적 지원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지난달 최 부총리는 "자본시장 선진화 간담회"에서 기업의 자사주 소각이나 주주배당 '증가분'에 대해 법인세 감면의 세제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배당 확대 기업의 주주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 부담을 덜어 주겠다고 밝혔다.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세율 45%)에 합산되지 않고 저율 과세한다.

최 부총리는 그러면서 기업의 주주 환원 노력이 늘어난 정도에 비례해 세 부담 완화 정도가 커지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덧붙였다.

를 설계하겠다고 덧붙였다.

총선 이후 정치적 지형이 밸류업 정책의 입법화를 어렵게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구체적 내용에 차이가 있을지 모르나 여야 간에 합의점을 찾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많은 투자자가 있고 자본시장을 통해서 기계 금융자산이 생산적인 부분으로 흘러 들어가는 게 우리 경제 선진화에 중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포함해 자본시장 관련 정책들을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상속에 완화에 대해서는 "국민 공감대를 전제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민생토론회 등에서 나온 정책소요를 반영하기 위해 전 분야에서 예산을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연합뉴스

로또복권 (제 1116회)

등위	당첨금	당첨번호
당첨번호 15 16 17 25 30 31 /보너스 32		
1등	2,695,000,238	6개 숫자 일치
2등	39,400,589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3등	1,550,991	5개 숫자 일치
4등	50,000	4개 숫자 일치
5등	5,000	3개 숫자 일치

<h2>토지매매 (전원토지) 농막전문</h2>	<h2>상가 매매 (상무지구)</h2>	<h2>경매교육 [특수전문반 기초반, 중급반]</h2>
<p>1) 담양군 대덕면 (창평시장 5분) 780평 → 매매 1억2천만 (임야)</p> <p>2) 담양군 대덕면 (창평시장 5분) 302평 → 매매 2억1천 (농막포함)</p> <p>3) 장성 상오리 (장성댐 5분) 230평 → 매매 2억3천만 (농막포함)</p> <p>4) 담양 무정면 (광주 20분) 853평 → 매매 5억 (개발토지)</p> <p>5) 광주 서구 쌍촌동 (도로) 496평 → 매매 5억 (매년 보상나옴)</p>	<p>▶ 상무지구 중심 상업지구</p> <p>유용가능 (룸, 노래홀, 홀덤편)</p> <p>6층 (전용 60평) 7층 (전용 40평)</p> <p>★ 전용 100평 ★ (분양160평)</p> <p>(보3천, 월수익 350만)</p> <p>▶ 시세 - 13억</p> <p>▶ 급매 - 7억 (용4억)</p>	<p>* 특수 전문반 모집 (10명)</p> <p>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p> <p>2) 중급반 (실전부터 ~)</p> <p>3) 특수반 (유치권, 법지, 지분)</p> <p>4) 투자반 (투자가능한분)</p> <p>▶ 경매 물건 추천 ◀</p> <p>광주 전남</p> <p>광산구 신항동 (상가주택) ▶ 감정가6억4천→ 최저가 3억6천</p> <p>남구 진월동 (상가주택) ▶ 감정가 8억3천→ 최저가8억3천</p> <p>광산구 쌍암동 (상가빌딩) ▶ 감정가39억→ 최저가 27억</p> <p>북구 용봉동 (카센터) ▶ 감정가 6억 → 최저가 6억</p> <p>동구 학동 (상가빌딩) ▶ 감정가 4억4천 → 최저가 4억4천</p> <p>광산구 비아동 (토지,446평) ▶ 감정가 11억6천 → 최저가 9억3천</p> <p>광산구 도산동 (토지,94평) ▶ 감정가 3억4천 → 최저가 2억4천</p> <p>장성군 삼서면 (의료시설) ▶ 감정가 37억 → 최저가 26억</p>
010-6670-9800	062-382-5500	